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오늘은 2021년 3월 30일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실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이것은 비단 예수님 메시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인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운 자가 있어요

모세 때는 모세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노아 때는 노아. 다윗 때는 다윗 솔로몬 때는 솔로몬

이와같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은 사무엘 선지자 때는 사무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되요.

하나님께 사무엘 이름으로 사울왕이 안나가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았죠?

하나님이 세운자라서 그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메시아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월명동 올 때도 순서 절차 밝아서 그 나름대로 그 센터마다 세운 자가 있어요.

혼자는 못합니다. 지체 중에서 볼 것은 눈으로 들을 것은 귀로 걸어 갈 것은 발로 걸어가야죠.

생각할 것은 머리로 생각해야하고. 먹을 것은 입으로하듯이. 센터마다 세운 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통해서 선생님께 보고도 되고 알리기도 하

고 해요.

문을 지키는 자가 문을 지키는 자 통해서 들어오고 들어와서 행정보
는 일은 행정보는 자에게 가져가서

보고하니까 그 후에 그를 통해 전화올지라도 어느 날 이런 편지가
왔던데요 누가 같이 편지왔던데요?

응 맞다. 보고된거 그대로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된다. 한 번
더 확인할까? 한 번더 확인하고 전해주는거예요

시대마다 구약시대 모세 율법 준 것 중심해서 신약은 예수님 메시아
준 말씀 중심해서

그가 주인이니까. 그 이름으로 나가는게 상식인데 그 중요성을 모르
더라고.

한 번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본인들의 이름으로 자존심을
걸고 권세를 걸고 한 번 기도해봐요. 되나.

되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천국을 갈 수 있
나 한 번 해보라는거예요.

왜 그러는고 하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거예요

주는 하나님 보내서 주가 된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기에 제2의 하나
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깨달은 자는 그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스스로
깨달아지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거늘. 제 2의 하나님 역할을 했다는거에
요.

그런 의미에서 심부름할 때 정치에도 대통령 하는 기간은 머리가되
짚아요. 안 할 때는 내려오죠. 머리가 아니죠.

다음 사람이 머리가 되죠. 그런입장과 같다는 것이예요.

이번주간에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생각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것은 안가르쳐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심부름 받은 자가 아벨이에요. 세운 자가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의 이름으로 같이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가인이 직접 나가니 이걸 안 받고 이걸 받은거예요. 항상 그 이름으로 나가는거예요.

그와같이 예수님 때 예수님 메시아니까 예수님이름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같이 가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어떤 것은 줄 것은 주리라. 실행하는 것은 시동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이런 사람이 상당히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안했다가 잘 믿도가오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을만해? 현재 하는 짓으로는 믿을만 합니다. 가다가 또 비틀어진다면 또 내가 보고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므로 나한테 뭘 보고하잖아요? 나한테 뭘 부탁하면, 이런 사람이 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가 행한 것을.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 듣고 이제 교회나오며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자기 하나 갖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수학의 공식이 자기 갖고 안되

죠?

앞에거는 자기 뒤에 누가 더하기가 되야해요. 그래야 훨씬 더 답이 나오죠.

자기에서는 답이 안나와요. 맞죠?

2+5 행위대로 9하든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3+ 로는 답이 안나오죠. 그 후에 문자가 없는데 답이 나오니까?

수학의 공식의 신령한 얘기에요. 자기만 나가면 안된다는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만 나가면.

자기 더하기 메시아, 자기 더하기 선지자, 자기 더하기 중심인물, 믿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해요. 제2의 하나님이기에 결국 하나님 이름으로 고하는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고합니다 그 말보다 하나님 보낸자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십시오. 말이맞죠? 아멘이에요.

아멘하면 못 박은거예요. 그와같이 이 시대는 이 시대 이름으로 이 시대 하나님 보낸자 이름으로 나가는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내보내죠? 4번 3번 내려갔죠?

전달을 못해서 내려간것도 있고. 선생님 오랬는데 왜 내려보내? 전달이 못되서.

또 전화해보라고 하면 되요. 나한테 직접 해봐야해요.

그와같이 그 시대에는 그 시대 하나님 보낸자 이름으로 나가야해요. 내가 아벨이나 너희들 전도된 자가 아벨이나. 전도된 자는 보다 가

인편에 있는거예요.

아벨이 됐어도 따질때는 가인편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체편. 상대방에 있다는 거예요.

주체를 통해서 대상은 나가야된다. 예수님 내가 문이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한다.

내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께. 안 가면 하나님 보낸자 이름으로 안 가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꼭 물어버려요.

이리가도 저리가도 안된다니까.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가야해요. 주인이니까.

집에서도 호적 하러가면 묻죠? 아무것의 아들이네? 아무것의 아들이면 해줍니다.

그 아들이 아니면 안해줍니다. 그 사람이 땅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땅이니 여기다 나무 심으려고 신청합니다. 아들이네. 우리 아버지가 갖다 오랬습니다.

심으십시오. 이와같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 시대 주인인거예요. 주관권 주인이지만 메시아이니 온 인류의 주인인거예요.

그 이름으로 안나가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안되는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상징자잖아요. 직접적인 존재. 하나님의 상징인물이에요.

상징을 했어도 해준 것이다. 실제다 했습니다.

상징으로 나에게 이런 것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징을 내가 기도하니 근본을 모르니 기도하니 상징도 실제다 그랬어요.

실제는 직접 못하니까 상징으로 해서 실제를 한 걸로 해준 것이다.
확실히 알아라. 상징으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상징도 준 것을 감사
합니다 했을 때 상징이 실체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었어요. 메시아 맞은 것은 하나님 맞은 거다.
하나님 실제 와서 오겠냐
메시아 와서 맞은 것은 하나님 맞은 거다. 실제로 하라. 기도할 때
똑똑히 하라.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했다 .이는 자기가 구원했기
때문이다.
십자가 저서 생명을 샀기 때문에 주인 항상 허락받고 하라.
주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상징은 실체니라. 예수님은 상징적
인 하나님이다.
실제와 같다.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이것 갖고 기독교는 헛갈려. 어
떻게 예수님 하나님이나.
그러다 상천하지 절대신으로 해버렸죠. 하나님 따로 있는데 상징적
으로 예수님 세상에 보냈어요.

남자가 여자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수술하나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사명줘서 하면은 상징적으로 남자가 된거에
요. 맞죠?
듣는 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만 말은 정확하게 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징자를 통해서 말씀하는거예요. 여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 내 일을
여자에게 맡겨서 그가 하면
상징적으로 하는거랑 똑같은 말이야. 내가 사명줘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조은이 통해서 했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여자가 내가 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믿고 하면 그대로 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제 2의 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죠?

상징은 실제다라는 말이 맞죠? 밥이 있는데 내가 안 먹고 네가 먹고 내 일좀 하라.

그러면 자기가 먹고 내 일 했으면 그걸로 끝난거예요.

밥 없어지고 그걸로 끝난거예요. 상징자가 함으로서 끝나버린거예요. 그렇게 중요한거예요. 상징자가 한 것으로 끝나버린거예요.

잘 듣고 잘 깨달아.

신앙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신앙의 부모죠?

한 혈통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시 100% 인계받고 했으면 부모가 한거랑 똑같아요.

부부사이라도 남자가 할 일은 여자가 그대로 받아서 하면 한거예요.

메시아는 아벨이다. 가인은 아니다. 하나님 보낸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가인 것은 안 받았다.

아벨 것은 받았어. 아벨 이름으로 가면 되는데 아벨 이름으로 못 나갔어.

안 받았다고 아벨 쳐죽이고 미워했죠? 시대도 그러하니라.

항상 아벨 이름으로 나가야한다. 메시아 주는 아벨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는 의인이라. 그는 너희를 위해서 다 미리 구해왔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가야 되. 모든 행정적으로 보면 정확하죠?

산림청 행정은 산림청 행정 허가 낸 사람으로 항상 해야해요.

누구한테 산림청 허가해서 여기 간벌작업하고 있습니다. 딱 전화하면 네 허락했습니다.

토목공사에 전화하면 모릅니다 해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고 알게 됐으니 항상 주를 대는거예요.

섭리안에서 내 이름 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확인하죠. 긴가 아닌가. 확인해서 맞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해놓고 예수님 걱정한 것이 있어요. 내 이름을 이용할까봐. 그래서 확인하라.

주의 이름으로 사탄이 들어와요. 주의 이름으로 사기꾼이 들어오고. 주가 허락했다. 주가 말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하고 적어놓잖아.

내가 잊어버릴까봐 옆 사람이 적어놓는다고. 어느 날 언제 무슨 말했냐 허락했냐. 이런입장에서 말했습니다.

항상 허락한 것 해줘야하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늘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

주의 이름으로 하면 이익이 되죠. 그렇게 큰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늘 하도록 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안 들어가있습니다. 충격이지?

전부 중앙에서 다 잘라버리죠. 하나님이. 안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안 하는 것 천법인데.

천법 1조 1항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니 기도가 안 들어져있어. 상달이 안되는데.

나부터도 꽤 씹해서 허락지 않는다. 이것들이 겨우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나왔잖아.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목사들도 나오고 큰자들도 나왔잖아.

여기 와서 시대 말씀 듣고 구원이 됐어요. 왜? 기다렸단 말이야. 하나님 시대가 온다고.

기독교 구원받는데 새로운 시대 구원 못 이뤘단 말이에요. 와서보니 새로운 시대 역사 이뤘거든.

그거 전했으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감사하고 좋아하고. 나에게도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 죽었다고 하나님께 다 가는게 아니에요. 영혼이 이룩이 안되요. 할 일 못했으면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요. 육신 생각과 다르더라니까.

꿈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안되더라는거야. 할 일 못했으면 안 움직여집니다. 영도 육도.

할 일이 안되서 그래요. 행한대로 맘대로 되는 것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되겠냐.

생각 실상 세계인데. 행했으면 되고 안 행했으면 안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 한가지 얘기해줄게요. 안 하고는 안되게.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천막에 잠깐 들리고 싶어. 들렀더니만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

왔느냐? 새벽에 기도하러 왔네 멀리서?

뭐 물을 거 있냐? 자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디다 가입을 해야한 데.

약사래. 약사 가입비가 2천만원 줘야되고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줘야된데.

이사가는데 인테리어 가는데 10평 4천만원에 해준다고 한데. 6천만원 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려고한다.

성령께서 잠깐 문 열고 들어보려 하니 성령이 항상 나를 쓰잖아. 나는 안 열어본다고.

다 하지말랬어요. 성령이 나를 통해 물어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물어보니 해야하는거예요.

다른 사람 못하죠. 전문가도 아닌데. 나는 약사도 전문가도 아닌데. 성령이 나를 통해 하지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내코치받고 약사되고 뭐도되고 했잖아.

여기까지 오기도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했는데 뭐 개들 주관 받아.

답을 안 주려다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하니까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니까 해주마.

인테리어 4천만원? 한 평에 400만원 들어 약국? 내가 인테리어 왕이야. 월명동 세계적으로 인테리어 해놨잖아.

자연성전 인테리어 316관 인테리어 하나님 구상받고 했잖아. 내가 전화해주마.

1800만원에 해준다고 약속받고 해줬어요. 다 깨끗이 해주는 것 상 위급으로 해주는 것.

그래서 1700-1800 충분히 해져요. 4천만원 하려면 1년동안 해야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답을 주더라고. 나도 모르지.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나는 마음비우고 말씀 오는대로 전해줬어요.

이리저리 연결시켜줘서 그는 약 20분만에 그렇게 벌은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말고 실제 주의 이름으로 항상 물어보고 행하고, 그러면 잘 되요.

어제도 누가 항상 일 시키는데 오늘은 굶은 마사토가 70-80트럭 들어옵니다.

어디 쓰려고 그래? 마사토 한 숟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이해시키고 다 얘기하니 한 트럭도 필요 없네요? 한 트럭도 없이 해결됐어요.

거기도 600만원 들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지는 것 근본이잖아요. 하나님 수학은 역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되요.

바둑 돌지 몰라도 9단 시키는 대로 하면 9단이에요.

축구도 차, 내 말 순종하는지 볼거야. 안 들어갔어도 기뻐. 시키는 대로 했으니 기쁘잖아.

새도 맞다고 하잖아. 저 새가.

수요일날은 명곡시간인데 조은목사가 말씀 너무 좋아서 명곡은 다음에 들어도 되니

말씀 나오는대로 내보내자고 해서 수요일 말씀 또 내보냅니다. 기대해라고 하잖아.

기대해 기대해 정말 기대해.

지난주일 분별하라해서 토요일 밤까지 비맞고 다니면서 다 분별했네.

오늘은 이렇게 많이 쌓인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있어요.

이 서류가 이렇게 세 개 들어왔어요. 서류 잘 보라고 기도좀 많이 해줘.

정말 힘들어. 세 권봐요 이번주일에. 이거 다 봐야합니다.

기도할테니 누구든지 기도를 받아. 주인 알고 기도받으면 낫겠죠.

일요일 날은 내가 동남아 순회 집회 했어요. 예배 마치고 바로.

지난 일요일날.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너에게 주마.

병고치는 은사가 기도도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고쳐준다.

뼈다구를 맞추면 들어가서 고쳐준다.

운동 기본적으로하면 건강해서 신유은혜 받은거다 이런걸로 해서 15가지 가르쳐줬어요

시작하고 현장에서 턱빠진 것 낫고 이지가지 낫고 머리아픈거 나아졌다 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나았다고 하더라고. 이와같이 신유의 은혜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는건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야 사탄이 안건들고 마귀도 안건들어.

주가 매일 기도해요. 한 7가지는 꼭 하고와요. 그 중에 아픈자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탄 흑암 악평자 이런 자들 기어이 합니다.

하나님 하면 일한 것이랑 똑같기에 일 표가 나잖아.

여러분도 꼭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벽을 깨워야해. 새벽에 잔다? 지금 잠잘때야? 잠자니까 안되고, 주의 이름으로 주가 시키는대로 안하니 안되는 거예요. 아픈자 뿐만 아니라 잘 한자 열심히 한자 축복해줘, 잘못된자 기도하고 아픈자 기도하고. 나도 어느 때 아프다 할 때는 너무 많이 해서 아프더라고. 그렇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관리 잘못해서 아픈 사람 있고, 가다보니 오래 쓰니 몸이 아프고 쭈시는 것도 있습니다.